

정리하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  
야권연대 반대!  
혁명정당 건설!

# 혁명

## 총선특보 1호

발행일 : 2012년 3월 15일  
발행처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3가 70번지 3층  
블로그 : blog.jinbo.net/wrp

# ‘묻지마 야권연대’가 노동자 인민대중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이나, 지난 4년 동안 모든 것은 반MB로 통해왔다. 그러나 반MB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이 아니다. 적어도 크게 두 개의 반MB가 지난 4년 동안 각축전을 벌여왔다. 아래로부터, 투쟁과 함께, 노동자 인민대중 속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반MB가 있다. 촛불투쟁, 용산투쟁, 쌍용자동차 투쟁, 현대차비정규직 투쟁, 재능을 비롯한 장기 투쟁 사업장, 청소노동자 투쟁, 희망버스/희망텐트촌 투쟁 등이 그것이다. 이 반MB는 대중적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비정규직, 정리하고 없는 세상’으로 집약되었다. 이와는 다른 또 하나의 반MB가 있다. 지자체 선거, 재보궐 선거에서 형성된 반MB 야권연대, 안철수, 박원순, 나꼼수 현상으로 표출된 반MB가 그것이다. 이 반MB는 최종적으로 ‘반MB 선거심판론’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 두 개의 반MB가 때로는 공존하면서 또 때로는 갈등하면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키워왔다.

## 반MB의 실체

지난 4년 동안 반MB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존재의 이유였으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 이 명박 정권은 거침없이 자본가계급의 이해와 이익을 위해 앞장서 진두지휘했다. 반MB가 시대정신

으로까지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사실 원래 반MB는 하나였다. 노동자 인민대중이 온몸을 던져 투쟁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목숨을 잃어가면서 투쟁했던 것이 반MB의 실체이자 본류였다. 알겠지만 구민주당은 이른바 뉴민주당 플랜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그러다가 노동자 인민대중의 투쟁을 보면서 슬그머니 반MB를 끼워 넣기 시작했다. ‘진보정당’이 여기에 ‘선거심판론’, ‘정권교체론’이라는 이름으로 날개를 달아주면서 지금의 야권연대가 마치 반MB의 전부이자 핵심인 것처럼 왜곡,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다. 거기에 더해 이미 관료화되어 현장노동자의 고통과 이해로부터 자립화된 민주노총을 비롯한 공식 노조 지도부를 비롯하여 그동안 이른바 ‘범좌파’를 형성하고 있던 세력들조차 ‘진보정당’을 제어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거나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 립 서비스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 등과 같은 현란한 정치적 수사가 난무하고 있어 마치 정권만 바뀌면 금방이라도 세상이 달라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보면 정리하고제 폐지는 정리하고 ‘요건 강화’로, 비정규직 철폐는 ‘차별 축소’로 슬그머니 바꿔치기 하고 있다. 한미 FTA 폐지는 사실상 실체도 불분명한 재협상으로, 제주 ‘해적기지’ 논란에서는 아예 지배계급의 논리를 손들어주는 현상마저 등장하고 있다. 바로 그 결과가 최근 반MB 대세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배계급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온갖 매체들이 이 때다 싹게 자본가정당 사이의 쇄신/혁신 경쟁이나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앞 다퉈 보도하면서 이것들이 마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나 쟁점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그나마 반MB라는 개념 속에 남아 있던 최소한의 계급적대성마저 완전히 앗아가려고 달려들고 있는 것이다. 야권연대 입장에서도 겉으로와는 달리 내심으로는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야권연대 최대의 목표는 오로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는 것과 연말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달성하는 것뿐이다. 여기에 금상첨화와 같은 것은 자신들이 해결 할 의지도 없으며 감당할 수도 없는 노동자 인민대중의 요구와 관심사를 자본주의 체제 내에 묶어두는 일이다. 물론 그 때문에 선거에서 불리하다 싶으면 ‘립 서비스’는 언제든지 다시 등장하겠지만 말이다.

## 공동정부를 집어치워야

반MB는 여전히 정당하며 필요하다. 그러나 ‘묻지마 야권연대’ 아래에서의 반MB는 정당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 노동자 인민대중이 말하는 반MB는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정도라도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정도의 투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그와 반대로 먼저 야권연대를 통해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고 나서 그 힘으로 투쟁을 벌이자고 하는 것은 무장해제를 한 채 싸움터에 나가자는 것에 불과하다. 자본가정당과 단절하라는 노동자 인민대중의 요구 역시 여전히 정당하며 필요하다. 자본가정당과 연합하는 공동(민주대연합)정부는 노동자계급의 독자 정치, 직접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간 다리가 아니라 혁명적 투쟁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제까지의 세계 역사가 그것을 생생히 증명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미 충분히 경험한 바 있다. 자유주의 정권 10년 동안 노동자계급의 독자 정치, 직접 정치는 훨씬 더 후퇴했다. ‘진보정당’은 그 시기에 정권의 이중대 역할을 벗어나지 못했다. 만약 공동정부가 들어선다면 그 양상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다. 지금 노동자 인민대중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주범은 바로 ‘묻지마 야권연대’이다. **혁명**



# 야권연대에 맞서는 전국적 정치전선을 지금부터라도 형성하자!

적어도 작년 희망버스 투쟁이 ‘국회권고안’ 앞에서 좌절되기 시작할 때부터라도 야권연대에 맞서는 전국적 정치전선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야 했다. 노혁추는 바로 그 시점에서 “2012년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 10대 요구”를 내걸고 야권연대에 맞서는 전국적 정치전선을 형성하자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노혁추는 희망버스 투쟁이 불러일으킨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연대투쟁, 즉 공식노조 체계와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동시에 ‘진보정당’으로부터 촉발되거나 ‘진보정당’에 의해 주도되지 않는 투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 운동을 더욱 진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대 요구>와 같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총기치를 내걸고 투쟁함으로써 야권연대에 의존하지 않는 전국적 정치흐름을 형성해야 할 필요를 절감한 것이다.

진보정당’은 위기를 맞으면서 그 돌파구를 세계적 흐름과는 정 반대로 자본가정당과 통합하는 것에서 찾았다. 자본가정당과 단절하라는, 즉 민주대연합을 거둬들이라는 요구를 오히려 자본가정당과 통합까지 해 버리는 것으로 답한 것이다. 민주노총 역시 온갖 꿈을 다 부러가면서까지 통진당에 대한 사실상의 배타적지지를 강행하고 있다. 이 틈바구니에서 죽을 썩고 있던 부르주아 야당이 대중의 반MB 정서를 가로채 민주통합당을 통해 기사화시키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와 함께 반MB 야권연대가 마치 대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

지금 노동자 인민대중이 처한 상황은 참으로 어렵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즉 야권연대에 대당하는 전국적 차원의 정치적 대안 구상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2013~14년 예상되는 지배계급의 총공세를 그대로 당해야 하는 현실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에서 말하고 있는 정치총파업을 현장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실질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통해 현 상황을 돌파하자거나, 더 나쁘게는 선거국면에 대한 개입 자체를 터부시하는 태도와 전술로는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 정치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전국적 정치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것도 대중에게 야권연대 반대를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폭로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상황인식에서 그런 것이라면 더욱 재고해야 한다. 야권연대 반대를 분명히 하지 않는 정치총파업이 어떻게 가능하며 어떻게 조직될 수 있겠는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명확성이다. 도대체 누가 노동자 인민대중과 함께 끝까지 정세를 부여잡고 투쟁하려는 지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선 <희망광장>에 모인 투쟁하는 노동자들로부터, 자기가 속한 조직의 낡고 보수화된 이데올로기를 벗어 던지고 오로지 현 자본주의 체제가 노동자 인민대중에게 가하는 고통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믿는 활동가들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아니 지금은 그렇게 시작해야 한다. **혁명**

## 대기주의에서 벗어나 즉각 정세 대응에 나서자.

한편 야권연대와 통진당(더 정확하게는 통진당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통진당이 추진하는 민주대연합)반대 흐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는 ‘선언운동본부’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 흐름은 정체성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야권연대 반대를 일관되고 철저하게 진행시킬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한마디로 ‘진보신당’ 지지하라는 거냐?라는 반문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와는 달리 쌍용자동차 희망텐트촌 투쟁을 계기로 형성된 ‘노동자참가단’이 있다. ‘노동자참가단’은 바로 희망버스 투쟁이 ‘국회권고안’ 앞에서 좌절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희망버스 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노동자참가단’은 ‘점령하라’ 제호의 유인물을 통해 일관되고 철저하게 반MB 야권연대가 갖는 허구성을 폭로하고 노동자 인민대중의 직접행동, 직접정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노동자참가단’ 역시 야권연대에 맞서는 전국적 정치전선을 현실화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진보신당(사회당과 통합한)을 중심으로 총선을 전후로 하여 비통진당 ‘범좌파’(정당)를 모색하려는 흐름이 있다. 그러나 이 흐름 역시 자신들의 주관적 주장이나 의도와는 관계없이 ‘선언운동본부’가 부딪치고 있는 한계를 고스란히 안고 있으며 즉각 정세에 대응하려는 태도를 유보 또는 포기하고 대기주의에 빠져 있다.

<희망광장>에서부터 시작하자.

### 2012년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 10대 요구

- △ 일체의 해고 금지 정리해고제 폐지!
- △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보장!
- △ 노동조건 저하 없는 1일6시간/주30시간 노동으로 실업 해소! 야간노동 철폐!
- △ 물가폭등에 따른 생활임금 보장! 무상주거! 대학등록금 폐지!
- △ 집회·시위·결사·표현의 자유!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약법 철폐!
- △ 한미FTA 반대! 민영화 반대! 기간산업(재)국유화!
- △ 제국주의 전쟁 반대! 자본가 국가의 군사주의 반대!
- △ 재벌 몰수 국유화! 노동자통제!
- △ 은행 국유화!
- △ 노동자 통제 하에 단일 국영은행으로 통합!
- △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 △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노동자정부!

### 야권연대는 대세도 대안도 아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진보정당’은 ‘민주대연합’이냐, ‘진보대통합’이냐를 놓고 세월만 죽이고 있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혁명적 투쟁, 유럽에서의 광장점거시위, 마침내 미국에서 등장한 월가점령운동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인민대중의 직접행동과 투쟁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는 정세였음에도 ‘진보정당’은 그런 것과는 아랑곳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급기야 안철수, 박원순 현상이 등장하면서 서울시장 선거에 이르러서는 존재감조차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창간준비 6호 (2012. 03. 02) 정세월간지 **혁명**

진보정당들의 이러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공약과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정리해고 ‘요건 강화’, 비정규직 ‘차별 축소’ 공약이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외치면서 자발적인 연대의 정신으로 노동자 민중들이 희망버스를 타고, 희망텐트를 치고, 희망투쟁비를 내딛어도 이를 진보정당들은 웃음은 짓, 뭇본 척 정리해고제 폐지와 비정규직 철폐를 국구 외치려고 있다. 이유는 이렇다. 자본가 정당과 손잡는 야권연대에 목을 매고서 오직 야권 단일화를 통한 의석 확보만이 걸 걸이하여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부터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까지 모든 것을 야권연대에 종속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명> 창간준비 6호에서는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다. 2012년 청세 속에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어떻게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야권연대/반MB 선거심판론으로 왜곡, 수렴되는 것을 막고, 대 중투쟁의 현 가운데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 흐름을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모색을 담았다.

— 편집자 글 <혁명> 창간준비 6호를 내며 중에서

구독신청  
E-mail : wrp@jinbo.net  
전화번호 : 02) 6348-8318  
[ 값 : 5,000원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blog.jinbo.net/wrp